

지역 소식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방한 특집 기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2004년
10월

7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성별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베드나 장로는 지역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지역 대표, 스테이크 회장으로 두 차례, 그리고 감독으로 봉사했다.

베드나 장로는 1952년 6월 15일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독일 남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그 곳에서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퍼듀 대학교에서 조직 행동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베드나 장로는 텍사스 공대와 아칸소 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가 되었다. 이후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전 리кс 대학)의 총장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일했다.

베드나 장로는 1975년 3월 20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수잔 카에 로빈슨과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한국 성도에게 전하는 축복과 경고의 말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했다. 사도로서 그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간증하고 한국인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연합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드나 장로가 방한 목적에 관해 한 말이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김포 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드나 장로는, 10월 20일 저녁 광주에서, 21일과 22일에 부산에서 특별 영적 모임을 열었다. 부산에서 열린 이 두 모임은, 사전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보내온 여러 질문에 베드나 장로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 21, 22일에 열린 모든 특별 영적 모임은 전국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방영되었다.

이 세 가지 특별 영적 모임 이외에도 베드나 장로는 한국의 모든 선교부를 돌며 선교사들과 함께 영적 모임을 열었으며, 각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과 했던 영적 모임, 언론과의 인터뷰 등 짧은 방한 기간 동안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23일 부산 스테이크 대회를 마지막으로 베드나 장로는 한국 방문을 마무리한 뒤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베드나 장로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방한 소감을 밝혔다. “... 한국 교회 회원들은 충실하고 용감합니다. ... 한국의— 그리고 전세계의—다른 회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하 6쪽 참고)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장 33절)



김포 공항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는 베드나 장로 부부

베드나 장로는 10월 19일 수요일 낮, 김포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부부, 최윤환 장로 부부도 함께했다.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베드나 장로의 방한을 환영했다. 베드나 장로는 곧바로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로 향하여 서울 선교부 및 서울 남 선교부 선교사들과 영적 모임을 열었으며, 다음 날인 20일 광주로 이동하여 대전 선교부 선교사들과 영적 모임을 했다.

목요일인 20일 저녁,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나 장로를 만나기 위해 모인 청중들로 광주 스테이크 예배당과 활동실이 가득 찼다. 광주 스테이크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전국 스테이크 센터 및 와드 지부 역시 회원과 구도자들로 북적였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하는 회원들은 방송 게시물에 '좋아요' 표시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님의 종이 예배당에 들어 서자,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하면서도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베드나 장로 역시 참석자들에게 미소로 인사를 전하며 연단에 올랐다.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의 사회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은 주님의 사도인 베드나 장로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베드나 장로와 그의 아내 베드나 자매 모두, 봉사하며 겪은 경험의 일화들을 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베드나 자매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했던 충실한 성도들의 일화를 전하며,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며,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베드나 장로는 말씀을 시작하며,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 모인 모든 회원과 구도자들에게, 또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말씀을 시청하는 한국 회원들에게,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안부와 사랑을 전했다. 또한 그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후기에 회복되었음을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후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나 장로는 한국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공격받는 것’에 관해 질문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했다. “이 교회를 이단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단이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교회 크기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사람들과 단순히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나 장로는 이날 특별히 한국 성도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전한 말씀의 주제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우리의 시각을 쌍안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는 것에 비유하며, “쌍안경을 올바르게 보면 멀리 있던 사물이 가까이 보이지만, 쌍안경을 거꾸로 든다면 시야가 흐트러져 사물이 멀리, 불분명하게 보일 것이며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공부나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강조했다.

“쌍안경을 거꾸로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안식일의 성찬식에, 성별된 그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이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주님이 성별하신 그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속죄에 대해 느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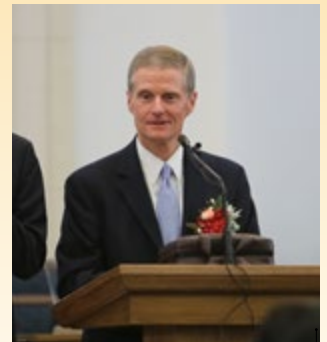
특히 베드나 장로는 대학원 학생 시절의 경험을 나누며, 성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주 힘든 대학원 과정에 들어갔는데,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안식일에 공부하지 않았던 후기 성도이며 세미나리 새벽반 교사였던 그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은 독신이자 비회원인 4명의 학생이 아니라 베드나 장로였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 저는 아주 평범한 보통 학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나의 능력이 성장하고 확대되었습니다.”

이날 모임이 끝난 뒤, 총장 와드의 임숙례 자매는 이렇게 소감을 나누었다. “사도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제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성 와드 청년 강지수 자매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고, 쌍안경을 올바르게 들어 사물을 가까이 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아빠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



광주 스테이크 예배당에 들어서는 베드나 장로 부부



광주 스테이크 특별 영적 모임에서 말씀하는 베드나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청년 독신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영적 모임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진 영혼의 질문에 답하다

광주에서 전해진 말씀의 여운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산에서 한국의 청년 독신 성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베드나 장로의 말씀이 전달됐다.

모임이 있기 약 한 달 전부터, 한국의 청년 독신 성인과 청소년들은 베드나 장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보내도록 요청받았다. 수집된 질문은 21일 금요일과 22일 토요일에 각각 열린 청년 독신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영적 모임에서 다루어졌다. 베드나 장로가 직접 질문을 고르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모임이 진행됐다.

합당하게 선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춤

금요일인 10월 21일 저녁 7시, 부산 스테이크 센터인 수정 와드에서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특별 영적 모임이 열렸다. 인터넷 방송과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통해 어디서든 이 모임을 시청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사도를 직접 만나고자 하는 열정은 서울 경인, 대전, 광주, 창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부산으로 향하게 했다. 수정 와드에 가득 찬 청년들 중 많은 수가, 베드나 장로를 보기 위해 다른 여러 지역으로부터 왔다.

이날 배우자 선택, 직업과 사회생활 등 청년들이 공감하는 여러 현실적이고 영적인 질문들이 언급되었다. 베드나 장로는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아내인 베드나 자매와 최윤환 장로 부부 중 답변할 사람을 지명하기도 했다.

모든 답변이 경전과 복음 교리에 기초하면서도, 베드나 장로 부부와 최윤환 장로 부부의 개인적인 경험과 진실한 간증이 어울어졌다. 이는 참석자들이 베드나 장로 부부와 최윤환 장로 부부를 인간적으로 더 가까이 느끼게 했으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특별 영적 모임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영적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말씀에 답하는
베드나 장로 부부와 최윤환
장로 부부, 경청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하고, 연사의 말씀을
경청하는 베드나 장로 부부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베드나 장로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경전 내용이나 현대 선지자들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 충실한 교회 회원 등, 이해를 돕는 좋은 사례들을 풍부하게 나누었다.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성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신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는 것이었다. 베드나 장로의 답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물몬경에서, 니파이는 낯쇠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 낯쇠판을 얻은 뒤, 니파이는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고 판에 ‘미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그 경험을 기록합니다. ...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낯쇠판을 얻었을 때, 그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에 그런 인도를 받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것이 계시인지(아닌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만 선하고 합당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신의 동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때 순간 아주 극적인 것을 겪지 않으면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신은 언제나 여러분이 옳은 것, 덕스러운 것, 올바른 것들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기도해라”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스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신입니까? 그럼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생각은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권유하며, 영의 권능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분석하거나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옳은 것을 하도록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원 스테이크 김유나 자매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오늘 모임에서 주님의 영을 느꼈고, 장로님의 유머 감각으로 재미있고 유쾌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기도 후에 드는 이 생각이 성신의 속삭임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베드나 장로님, 최 장로님 내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배움을 얻어 갑니다.”

수원 스테이크 구영원 형제는, “어제 페이스북으로 광주에서 열린 영적 모임을 시청했는데, 오늘 꼭 와야겠다는 느낌이 들어 (약간 무리를 했지만) 다행히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상적인 배우자가 갖춰야 할 요건 리스트를 만들지 말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납니다. 제가 좀 더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이예지 자매 역시 성신의 느낌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인천에서 이곳까지, 사도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신의 음성을 잘 인식하고 잘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신앙의 원리: 먼저 행동할 때 힘이 주어짐

22일 토요일, 청소년을 위한 특별 영적 모임이 시작되었다. 행복의 의미, 축복사의 축복을 준비하는 방법, 교회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의 통념 사이에서 겪는 갈등, 간증을 강화하는 법, 일부만 회원인 가족의 어려움 등 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다양한 질문들이 다루어졌다.

베드나 장로는 청소년들이 의문이나 질문,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가지 원리를 알려주었다. 그는 질문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그것은 또한, 간증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모든 표준 경전, 특히 물몬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과 함께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들을 이미 다루어 봤을 그런 분들과 상의하십시오. 질문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날 선택된 질문 중 회개에 관한 한 가지 질문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친구 중 몇몇이 감독님과 접견이 필요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독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나요? 주님의 방법대로 회개할 수 있게 어떻게 그 친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베드나 장로는, “회개는 단지 고백하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에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 우리 가슴 속에 변화가 있었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친구와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위에서 언급한, 회개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질문과 가르침도 있었다.

“청소년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베드나 자매는 “헝클리 회장님께서 대학생들에게 했던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구주를 믿는 신앙, 여러분 자신을 믿는 신앙, 미래에 대한 신앙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베드나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동의 원리이며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과 권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신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 나간다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을 받고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간단하고 단순한 것들을 하기 바라십니다. 그때 바로 힘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라며 신앙의 원리를 설명했다.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특별 모임에서 그랬듯이, 이 모임은 베드나 장로의 간증과 청중에게 전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었다.

부산 스테이크 김해 지부의 청년인 박동혜 자매는, “베드나 장로님께서 제가 보낸 질문을 골라 답변해주셨어요. 엄청 놀랐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은 시간이었고, 베드나 장로님 내외, 최 장로님 내외분께 감사드려요.”라고

전했다. 창원 스테이크 밀양 지부 청년 정승현 형제는 “오늘 모임에 참석하면서 선교 사업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모임 후기를 전했다.

청남 손유성 형제는, 서울 서 스테이크 지역에 살면서 사도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왔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 중, 가장 열심히 들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공부처럼 경전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라는 말씀이 와 닿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3일 일요일에 열린 부산 스테이크 대회를 마지막으로, 베드나 장로는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고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

참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방영된 특별 영적 모임은, 원하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 한국 교회 페이지(www.facebook.com/ldschurchkorea/)에 당분간 게시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방한 특집 기사

베드나 장로의 방한 소감

“베드나 자매와 제가 2008년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명 받았을 때, 우리는 그들의 나라에 방문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해맑은 어린이 두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부산 스테이크의 조봉재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조 회장님 부부는 열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베드나 자매와 저는 그들의 청소년 자녀 두 명이 8년 전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그 어린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놀랐고 기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얼마나 선언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더욱 더하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였음이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앨마서 12:2) 거의 1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방문하여 이 충실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실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 회원들은 충실하고 용감합니다. 복음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하는 이 가족과 한국의—그리고 전세계의—다른 회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때, 그분이 신앙을 강화하고 위안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발췌: www.facebook.com/lds.david.a.bednar/



계속되는 지역 계획

2016년 지역 계획은 회원들에 의해 널리 행해졌습니다.
2017년에는 지역 우선순위와 목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역 우선순위

개인/가족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계획의 각 요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 준비한다.

단위 조직

1. **자라나는 세대:**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한다—회원과 비회원 모두.
2. **실질 성장:** 우리는 회원의 개종을 심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한다.
3. **자립:**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을 강화한다.

지역 목표

개인/가족

나는[우리는] 다음을 행하여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다.**

1. 조상의 이름을 찾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성전 의식을 행한다.
2.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 개종을 **강화한다.**
3. 안식일의 예배 경험을 **단순화하고 드높인다.**
4.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한다.**
5. 다른 사람을 한 명씩 보살피며 **사랑한다.**

단위 조직

우리는 다음을 행하도록 격려하여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고, 실질 성장을 이루며, 자립을 강화한다.

1. 모든 회원이 조상의 이름을 찾아 그 이름을 성전으로 가져가도록 **힘써 노력한다.**
2. 모든 회원이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 개종을 **강화한다.**
3. 모든 회원과 지도자가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의 예배 경험을 **단순화하고 드높인다.**
4. 모든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한다.**
5. 모든 회원이 다른 사람을 한 명씩 보살피며 **사랑**을 표현한다. 여기에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 포함된다.

작년 초에,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지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한다/드높인다/단순화한다/힘써 노력한다/강화한다/권유한다/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내용의 지역 비전은 한국과 일본, 괌, 미크로네시아

회원들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스코트 디 와이팅 회장님과 지역 회장단의 두 보좌분들은 회원들의 모든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 계획은 지역 우선순위와 지역 목표에 새로이 중점을 두고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는 지역 우선순위와 목표에 대한 와이팅 회장님의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리아호나 지역 페이지에 실릴 지역 계획 기사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우선순위: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2017년 새해를 위해-북 아시아 지역 회장: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작년에 소개해드린 지역 계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 아시아 지역 비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모습에 저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암송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회원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는 지역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역 비전이 자리를 잡았기에, 이제 더 많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강한 기반이 생겼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지역 회장단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신 권고에서 나온 “선지자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이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느낄 기쁨과 행복의 수준과 개인 및 가족, 교회 단위 조직에서 보게 될 성장의 정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약속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더 진전시키고, 물몬경을 더 많이 이해하며, 안식일 예배와 준수의 질을 더 높이고, 친구와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더 증대시키며, 동료

형제 자매를 보살피며 우리의 사랑을 더 보여주고자 노력하면서, ... 이 다섯 가지 원리, 다섯 가지 “선지자들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부분에서든 매 순간 조금씩이나마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한 번에 꺾충 뛰어서 백두산 정상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 산을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도 이와 같습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년보다 올해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함께 기뻐한다

저희 지역 회장단은 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 회원이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권유하며 조상을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일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강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높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과 나누고 사랑하며 보살핀다면,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조상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성전에 가져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물몬경을 읽자고 권유한다면, 가족과 지인들이 성찬 예배를 기쁘게 하도록 도와준다면,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보살필 기회를 만든다면, ...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표를 할 일 목록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놓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 일 목록에 완료 표시만 하려고 한다면, 목표를 성취하는 일의 온전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성전에

아담과 이브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슬픔과 괴로움, 고통이 있게 되었으며, 힘든 일과 가족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문제를 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낱기 시작한 후입니다. 물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이지요. 에덴 동산에 관해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고, 일할 필요도 없었으며, 선과 악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야 비로소 아담은 진정으로 기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왜 제물을 바치는지 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담의 대답은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였습니다. 그 후 천사가 아담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리고 그 날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 이후로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독생자니라. 네가 타락하였으므로 구속될 수 있나니, 온 인류가, 곧 원하는 자마다 그러하리라 하니라.

가져가거나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친구들이 복음에 관해 듣도록 초대하는 행동만으로도 할 일 목록에 완료 표시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언제나 성령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기쁨을 친구들과 나눌 때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표를 성취할 때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에 관해 숙고해 본다면,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목표들이 만들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어렵고 매우 비참할 것입니다. 니파이후서 2장에 사람이 존재함을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고 나온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서 5장을 읽으면, 아담이 기쁨을 찾는 것에 관해 어떻게 느꼈는지 조금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그리고 그 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하게 되어 땅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

즉, 아담이 동산에 쫓겨나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아내와 자녀를 가지기 시작하며, 천사가 그를 가르치고 성신이 그에게 내려온 후에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이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브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니라.”

삶의 어려움과 기쁨

제가 이 경전 구절에서 배운 것은 아담과 이브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슬픔과 괴로움, 고통이 있게 되었으며, 힘든 일과 가족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문제를 안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때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오랜 시간 일하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을 찾는다

가끔 삶의 수레바퀴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돌아보며 헤아려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해야 할 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의 근심 걱정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축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알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큰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 구원의 계획, …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것을 안다면, 기쁨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가 현재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제 자녀들이 저희 부부에게 인봉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평화를 느낍니다. 이에 기쁨을 느낍니다.

새해를 위해

지역 회장단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역 회장단으로서 저희는 다가오는 해에도 계속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찾고, 계속 사랑하고 드높이며 단순화하고 강화하며 힘써 노력하고 권유하고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때, 이 복음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는 이 기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

주

1. 니파이후서 2:25 참조.
2. 모세서 5:6.

2017 (동계) 연합 청소년 캠프

이번 겨울을 뜨겁게 달굴 '2017 연합 청소년 캠프'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7 연합 청소년 캠프는 대전 선교부 산하 6개 스테이크 및 지방부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동계 청소년 대회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구하라"(야고보서 1:5 참조)를 주제로 대회가 진행된다. 약 30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일정: 2017년 1월 12~14일(2박 3일)
- 대회 장소: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충남 천안시 소재)
- 참가 대상 지역: 광주 스테이크, 대전 스테이크, 순천 지방부, 전주 스테이크, 청주 스테이크, 홍성 지방부 지역

참가 대상 연령: 2016년 기준,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초, 중, 고등학생
지난 10월부터, 대회장인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를 중심으로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청소년 회장단과 특별히 부름받은 청년들이 합심하여 이 대회를 준비해 왔다. 운영 위원장인 광주 스테이크의 김종인 형제와 그의 아내 윤지원 자매는 사전에 모든 청소년 지도자와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미션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값진 진주의 '조셉 스미스—역사' 완독, 둘째, 대회 주제 성구인 야고보서 1장 5절 암기, 셋째,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과 간증 및 경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진을



대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기.

진리를 구하던 조셉 스미스의 경험처럼, 이 대회는 경전을 탐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종인 형제는 "많은 분들이 이 캠프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행복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실히 준비할 때 주님의 따뜻한 축복이 더해지고 더욱 훌륭한 캠프가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

2016년 제2회 온누리 전국 중창제

주님께서 이 찬송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지난 11월 19일,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온누리 합창단이 주최하는 제2회 전국 중창 축제가 열렸다. 지난 2015년 한국 교회 헌납 6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된 이 행사는,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성원 속에 이제 2회를 맞았다.

이번 중창 축제는 지역(예선) 축제와 본선 축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10월 동안 대전 선교부 지역, 부산 선교부 지역, 서울 및 경인 지역 등 전국 3곳에서 열렸던 지역별 축제에서 선발된 9개 팀이, 19일에 열린 본선 축제에서 중창을 발표했다. 와드나 스테이크 중창단 뿐 아니라 청년·청소년 중창팀, 남성

중창단 등의 참여로, 다양한 구성이 눈에 띄었다.

온누리합창단 운영위원장인 고원용 장로는 "전국에서 모이신 성도들이 그동안 준비한 음악을 주님의 영을 느끼면서 찬송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찬송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간증 [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중창 축제에

참여했다는 창원 스테이크 김미자 자매는 "1회 축제도 좋았지만 이번엔 더 수준 높은 공연들로 귀가 즐거웠습니다. 각 와드 지부에서도 합창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전했다. ■

공연 영상은 페이스북 온누리 합창단 계정(www.facebook.com/ldsonnuri)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중창 축제의 더 많은 사진들은 lds.or.kr에서 볼 수 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자매 8명 / 장로 6명



구정아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김효준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박성진 장로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영국 런던 선교부



박소영 자매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라이에 하와이
성전 방문자 센터



이은희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이준현 장로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이한경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중국 홍콩 선교부



임영호 장로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호주 브리즈번
선교부



임현진 자매
프로보 스테이크
아시아 1와드
대전 선교부



강경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호주 시드니 북
선교부



정재영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조재완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대전 선교부



조현정 자매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영국 버밍엄
선교부



최리현 자매
웨스턴 스테이크
프레전트뷰10 와드
부산 선교부

광고 및 공지 사항

여러분의 기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성찬식에서 들었던 좋은 말씀, 훌륭한 모범이 되는 회원들의 이야기, 진실한 간증 등이 모두 지역 소식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1. 십이사도 정원회 베드나 장로 방한 후기 모집: 영적 모임에서 받은 영적인 느낌을 나눠주십시오.
2. 사랑의 편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간증과 사랑의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선교사와 주고 받은 편지, 사랑과 사과를 표현하는 편지, 특별한 기념일에 보낸 (간증이 포함된) 편지글 등.
3. 각 지역에서 2017 지역 계획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기사 기고 및 제보 방법>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 및 제보해주시요.

이메일: kah_liahona@daum.net

전화: 02)2232-1441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지역 소식에 소식을 제보하고 싶어요” 등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i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idschurchkorea/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안병근 형제(전임: 유복상 형제)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감독: 강봉균 형제(전임: 오동령 형제)
흥덕 와드 감독: 남상덕 형제(전임: 정해상 형제)